



직장인 스트레스 심각

직장인 3명 중 1명이 실직에 대한 염려, 과도한 업무, 상사나 동료와의 불화 등으로 불안·압박감 등에 시달리고 있어 정신질환의 일종인 불안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제대학교 신경정신과 우종민 교수팀이 남녀 직장인 3,732명을 대상으로 불안 장애 증상을 조사해 최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인 중 22.2%가 불안장애 잠재군으로, 9.8%는 불안장애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불안장애는 이유없이 불안을 느끼거나 불안의 정도가 지나친 정신장애를 뜻한다.

불안장애 잠재군은 불안감이나 압박감, 초조감 등의 불안장애 증상이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며 위험군은 증상이 심해 직장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한 경우다.

특히 여성은 관련 증상이 심해 생산직 여성은 29%가 잠재군, 15.2%가 위험군으로 드러났다.

남녀 모두 20대 연령층과 직장근무 2~5년차에서 불안장애 잠재군 또는 위험군 비율이 높았다.

이와 함께 직장인 가운데 상당수는 우울장애 증상에 시달리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생산직 여성의 경우 우울장애 잠재군이 17.8%, 위험군이 6%나 됐고, 사무직 여성은 각각 9.5%, 0.5%였다.

이처럼 불안·우울장애 등에 시달리는 직장인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데다 집중력 저하와 의욕 저하 증세도 갖고 있었다.

매일경제 2005. 8. 25

간접흡연 피해액 연간 10조원

CNN머니는 17일(현지시간) 간접흡연으로 미국이 매년 약 100억달러(약 10조원)의 손실을 입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미 조지아 주립대 연구팀과 보험계리인협회가 최근 실시한 조사 결과 간접흡연에 따른 비용은 의료비가 50억 달러, 근로 손실이 46억 달러에 각각 달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간접흡연에 노출된 어린이들이 병을 앓거나 사망하는데 따른 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며, 이를 포함시킬 경우 손실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연구팀은 추정했다.

한편, 미국에서 애연가들이 담배를 구입하는데 쓰는 돈은 매년 약 1,500억달러(약 15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헤럴드뉴스 2005. 8. 18